

2019 12 29 성탄절 다음 주일

테오토코스 성모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 의인

교회는 성탄절 다음 주일을 육화하신 주님의 탄생과 관련된 거룩한 인물 중에서 성모님의 약혼자 요셉을 축일로 기념합니다. 요셉은 베들레헴 출신이고 목수로 일하며 나자렛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6명의 자녀를 두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성서에서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그리고 유다입니다.(마태오 13,55 참조) 딸들도 언급하지만(13,56 참조)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니다. 다만 교회 전승에 의해 마리아와 살로미가 딸들로 추정됩니다. (제베데오의 아내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요셉은 경건한 이스라엘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큰 축일 때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경배하러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을 지켜보았던 사제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가 성모님과 약혼을 하여 보호자가 되어도 좋을 것 같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또한 자카리아 사제의 추천도 있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요셉은 비록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정녀 마리아가 15 세가 되었을 때 약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관습에 따라 동정녀 마리아를 데리고 나자렛으로 갔으며,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살았습니다.

루가복음(1,26-38 참조)에서 알 수 있듯이 나자렛에 살던 동정녀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성령으로 아들을 가질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받고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겸손과 단정함의 미덕을 갖추었던 동정녀 마리아는 하느님 아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굳이 보호자 요셉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니다. 몇 달이 흐른 후에 성모님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니다. 그들은 부부관계를 가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임신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랐습니니다. 요셉이 고민한 내용만으로도 성모님의 동정은 확실한 증거입니니다. 성 요셉은 성모님과 예수님의 완벽한 보호자였습니니다. 성모님과 는 실제로 부부 사이가 아니라 겉으로 남편의 모습만 보여준 것뿐입니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믿음입니니다.

요셉이 이렇게 큰 혼란을 겪고 있었을 때,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어라. 그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하고 일러주었다.”(마태오 1,20-21)

천사의 말을 듣고 마침내 깨달은 요셉은 하느님께서 자신을 성모님 곁에서 그녀를 보호하는 사명을 주신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느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동정녀 성모님과 아들에게 하느님 말씀대로 실천했습니다. 요셉이 마음을 다해 정성껏 성모님과 어린 시절의 예수님을 보호한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하면 모세 율법에 따라 돌로 쳐서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겉으로만 남편인 것처럼 하여 어머니와 자식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동정녀 마리아의 임신에 대한 진실을 알지 못한 나자렛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었을지는 자명하지 않았을까요?

로마 황제의 호구조사 명령이 있었을 때, 요셉은 임신한 마리아와 함께 나자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비록 동굴 속의 말구유였지만 한밤중에 신성한 아기가 탄생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헤로데 왕이 아기들을 대학살 했을 때는 위험에 처한 신성한 아기를 안전한 나라인 이집트로 피신 시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자렛으로 되돌아와서는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생계를 책임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일을 동정녀 마리아와 아들을 사랑하며 하느님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행동했습니다.

성서에 언급되었듯이 요셉은 예수님이 12 살이었을 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갔다고 전해집니다. 전승에 의하면 요셉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고 난 후에 하느님께서 주신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하느님께 그의 영혼을 바쳤다고 전해집니다.

요셉은 가장 훌륭한 남편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도 즉, 천사에게서 전후 사정을 듣지 않은 상황에서도 마리아에게 화를 내거나 크게 분노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 현실을 대처해 나갔습니다! 나자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걸어서 가는 먼 거리를 마리아를 보호하며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나중에는 이집트로 함께 피신 길에도 올랐습니다. 그 밖에도 수많은 일을 마리아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행동했고 오로지 하느님께서 인도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테오도코스 성모 마리아의 보호자였던 의인 요셉을 기억하면서 매년 축일을 지내는 것은 우리 교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모두 요셉 의인의 신중함, 깨끗함,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어려운 임무를 맡은 진실한 마음 그리고 하느님의 뜻과 그의 삶이 일치하기를 굳건하게 노력한 모범을 본받도록 합시다. 아멘.